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이 글은 제도번역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제도번역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주제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번역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을 고려해 볼 때 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과 같은 제도적 맥락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다.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논쟁을 비롯하여 PD수첩 광우병 편 자막번역 문제에 이르기까지 특정 기관에서 행해진 번역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은 번역에 대한 많은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적잖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사건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는 주로 번

1) '제도번역'에서 '번역'은 광의의 번역 개념으로서 통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문어텍스트를 토대로 하는 번역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역 문제를 정확한 번역과 오역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번역자의 역량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번역자의 능력과 정밀한 번역은 어떤 번역행위에 서든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번역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맥락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번역은 언어 전환의 문제만도, 번역자 역량의 문제만도 아니며, 오히려 정치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요인들이 텍스트 해석과 의미 고정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이 드러난다(Kang, in press).

그러나 아직까지도 번역을 ‘제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번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텍스트 또는 장르(예, 소설번역, 시번역, 성경번역, 자막번역, 광고번역), 언어(예, 한글번역, 영어번역), 특정 텍스트 현상(예, 은유 번역, 언어유희 번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대상독자(예, 아동번역, 일반번역), 번역주체(예, 전문가번역, 비전문가번역, 학생번역), 패러다임(예, 탈식민주의 번역, 페미니즘 번역, 문화번역) 등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중심으로 번역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그나마 국내에서는 출판번역(이상원 2005)이나 공공기관번역(Lee 2009, 이승재 외 2001), 언론기관번역(강지혜 2008, 송연석 2011, 이주리에 2011)이 다뤄지면서 제도번역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²⁾ 제도번역은, 번역자 자신이 선정한 텍스트를 본인의 번역관에 따라 번역하는 개별적인 번역과 구별되며, 따라서 제도화된 맥락에서의 번역에 대한 고찰은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번역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는 번역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번역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교적 최근 번역학 전면에 등장한 ‘제도번역’ 개념을 다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제도번역’의 개념이 번역학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을 검토한 후, 제도번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도번역에서 번역 주체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제도번역 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제도번역 연구의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구가 시급한 제도번역의 주제들을 논의한다.

2) ‘출판번역’의 경우 텍스트 중심적인 관점(예, 출판서적의 번역)에서도 볼 수도 있고, 상황 중심적인 관점(예, 출판계/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번역 관련 활동)에서도 이해할 수도 있다.

2. '제도번역' 개념의 등장과 배경

제도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번역을 지칭하는 '제도번역'이라는 용어는, 2009년 출간된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개정증보판에 등재되면서 번역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8년 초판이 발간될 당시만 하더라도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에는 '제도번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초판 출간 당시 편저자인 모나 베이커(Mona Baker)는,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짧지만 인접 분과학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40여 년 동안 놀랍게 발전해온 번역학의 학문적 성취를 정리하고, 이론적 논의의 토대가 되는 번역 실천을 문화권별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Baker 1998: xiii-xvii). 당시 “흥미로운 새 분과학문”, “연구 가능성이 풍부하고, 순수한 지적 에너지를 창출할”(1998: xiii) 분야로 기술됐던 번역학은, 10여년이 지나서 개정증보판이 출간되기까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학문적으로 크게 분화되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번역 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 정부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제도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번역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제도번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는 세계 최대 규모로 통역사와 번역자를 고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번역학이 유럽 중심적인 학문으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면 자연스러운 일인 지도 모른다.³⁾ 이처럼 유럽의 번역현상에 대한 관심이 제도번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이 개념은 오히려 다른 지역의 번역 실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는 '5. 제도번역 연구, 왜 필요한가?'에서 제시한다.).

'제도번역'에 대한 관심은 번역학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토대로 번역과 사회구조의 관계, 번역주체의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증가했다(Pym 2009, Wolf 2006, Wolf and Fukari 2007, Chesterman 2006, 2009, Pym,

3) 유럽연합에서 번역된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 번역 과정과 결과의 문제, 번역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 등은 번역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Koskinen 2000, Tosi 2003, Wagner et al. 2002).

Shlesinger and Jettmarová 2006, Pym, Shlesinger and Simeoni 2008).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장(field)’, ‘일루지오(illusio)’나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을 토대로 번역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과거 텍스트 중심으로 논의되던 번역을 사회적 구조와 실천의 차원에서 설명했다(Gouanvic 2005, Inghilleri 2005, Buzelin 2005).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 전환”(Wolf 2006: 9) 또는 “사회학적 전환”(Chesterman 2009: 16)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번역연구에 미친 파급력이 1980-90년대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관심은 번역이 행해지는 특정 기관의 규범,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제도적 맥락 속에서의 번역 주체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재 제도번역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많다. ‘제도번역’이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관련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쓰이고 있다.⁴⁾ 이러한 문제는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제도번역’에 대한 정의, 즉 “특정 조직 내에서 또는 특정 조직을 위해 이루어지는 번역(translating in or for specific organizations)” (Kang 2009: 141)에서 그리고 다른 제도번역 연구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카이자 코스키넨(Kaisa Koskinen)은 유럽연합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개념 정립을 시도하지만, 유럽을 넘어 다른 문화권의 제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 또한 제도번역은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캐나다 연방정부 번역국 분석을 통해 제도번역의 중요성을 번역학에서 최초로 언급한 브라이언 모섭(Brian Mossop)은, ‘제도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을 번역기관(translating institutions)에서 행해지는 번역행위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다(Mossop 1988: 69).⁵⁾

4) 이는 ‘제도번역’이 번역학의 용어로는 최근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번역 실천의 형식이나 유형으로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특별한 개념정립 없이도 사용될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5) ‘Translating institution’은 ‘번역기관’이나 ‘번역제도’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한 모섭과 코스키넨은, 특별히 번역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나 기관(translating institution)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기관에서 행해지는 번역을 ‘제도번역

‘제도번역’에 대한 탐구가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도번역’ 개념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 이외에도 ‘제도’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차원(예, 교육)에서 구체적인 차원(예, 특정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사용될 수 있고, 번역 자체도 제도로 간주될 수도 있을 만큼(cf. Hermans 1995) ‘제도’의 개념적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도적 맥락과 관련되지 않는 번역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제도번역’은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이 용어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라는 개념이 가진 모호성 때문이다. 번역은 그 자체가 ‘제도’일 수도 있고, 번역에 대한 의뢰 시점부터 번역서가 출간되는 시점까지 번역자나 번역이 필연적으로 제도(번역을 의뢰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번역서를 출간하는 출판사 등)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Kang 2009: 141)

즉 오늘날 번역은 ‘비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을 만큼 ‘제도화’된 맥락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도번역에 대한 개념 정립의 어려움은 여러 논의에서 나타나지만, 제도번역이 오늘날의 번역현상,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번역 문제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임을 고려한다면 불완전하고 미진한 점들이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제도번역’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원어인 ‘institution’은 어원적으로 ‘성향(disposition)’, ‘배치(arrangement)’를 의미하는 라틴어 ‘institutio’에서 유래하였다.⁶⁾ ‘성향’과 ‘배치’

(institutional translation)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translating institution’을 ‘번역기관’으로 번역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6) 라틴어 ‘institutio’는, 동사 ‘instituere’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며, ‘instituere’는 ‘세우다’,

의 의미는 오늘날 ‘제도’의 사전적인 뜻인 ‘사회 구조의 체계’ 또는 ‘집단행동에서의 규범’ 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그러나 ‘institution’의 용례들을 보면, 이 단어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나 ‘가족’ 같은 사회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식적인 기관을 일컫기도 하며, ‘스미소니언 박물관’, ‘고아원’, ‘정신병원’ 같은 물리적 건물이나 구체적인 시설을 가리키기도 한다.

‘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학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19세기 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사회학을 “제도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Merton 1998: xi). 여기서 제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행동을 유도하는 지식, 믿음, 도덕적 권위의 상징체계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상징체계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토대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규범을 통해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Parsons 1967). 규범과 규칙이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신념, 사고 및 행태를 지배한다고 이해한 구조주의적인 관점은 통제이론을 비롯한 사회학 이론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후기구조주의 영향으로 제도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더욱 다양해지면서 규범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의 주관성과 능동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개인의 행동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사회적 관행과 규범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주관적 의지를 통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교류적 관계가 구조를 재구성하며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상호교류 및 상호이해가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cf. Scott 2001: 13). 사회학에서는 그 외에도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쏟아냈고, 경영학, 정치학, 행정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제도 문제를 다뤘다. 번역학에서도 테오 허먼즈(Theo Hermans)는 “제도로서의 번역(translation as i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번역은 사회체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기대와 규범의 영향을 받으며, 번역자의 행위와 행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체계를 토대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정시키다’, ‘성립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Hermans 1995).

제도는 이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논의되지만 이 글에서는 제도를 '추상적 제도'(예, 교육), '형식적 제도'(예, 학교), '구체적 제도'(예, 특정 학교)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형식적인 조직의 유무와 상황의 구체성이다.⁷⁾ '추상적 제도'는 형식적,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적 요소들(예, 시간적, 공간적 요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반면, '구체적 제도'는 형식적, 공식적인 조직, 물리적 공간, 제도의 구성원,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등이 있다. '추상적 제도'와 '구체적 제도'의 양극단 사이 중간쯤 위치해 있는 '형식적 제도'는, 형식적·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적인 구체성을 결여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보더라도 각 범주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세 범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특히 통시적으로는 추상적인 제도가 구체적인 제도로 선행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공시적으로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제도가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위계 속에서 공존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더욱 어렵다(Koskinen 2008). 그러나 이 구분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구분법은 번역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제도번역을 '형식적 제도'와 '구체적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으로 간주한다. '형식적 제도'와 '구체적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조직과 구조, 특정한 상황적 요인들은 번역자 그리고 번역 과정 및 결과물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 개념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번역학자들이 입장을 달리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로서의 번역'을 주장한 허먼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제도를 논의한다(Hermans 1995). 그러나 특정한 제도적 맥락에서의 번역을 고찰한 번역학자들은 대체로 제도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일례로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을 "다시쓰기(rewriting)"로 이해한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re)는, 제도의 개념이 추상

7) 이러한 구분법은 코스키넨도 언급한 바 있으나, 그는 모든 제도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기대와 규범, 가치관과 믿음 체계에 의해 이끌어지는 공동의 행동 양식"(Koskinen 2008: 17)만을 강조할 뿐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반대하였다(Lefevre 1992: 11-15). 그는 후원체계(patronage system)에 대한 논의에서 후원자는 ‘개인’과 ‘제도’로 구성되며, ‘제도’는 종교기관, 정당, 출판사, 언론사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제도에 대한 모섭의 입장도 다음과 같이 유사하다.

이 글에서 언급한 번역기관(translating institution)은 명백하게 구체적인 기관을 뜻하지만, ‘제도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며 기술텍스트나 행정 관련 텍스트를 번역하는 기구, 순전히 경제적·정치적 실체로 이해되는, 큰 규모의 현대적 기구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번역기관은 매우 작은 규모일 수 있다. 문학번역서를 만들 수도 있고, 과거 사례들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후기르네상스 시대 작가들을 후원하던 후원자들도 제도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Mossop 1988: 69)

모섭은 ‘제도’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코스키넨에서도 나타난다. 코스키넨은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제도번역’이란, 공식적인 제도(관공서, 다국적 기구, 개인기업, 공식적인 지위를 대표한 개인 등)가 특정 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번역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자가 제도번역을 통해 듣게 되는 목소리는 번역기관의 목소리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도는 결국 번역을 통해 번역되는 것이다. (Koskinen 2008: 22)

코스키넨은 구체적인 제도에서의 번역을 ‘제도번역’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번역 범주에 포함되는 번역과 그렇지 않은 번역에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다. 즉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라고 모두 제도번역이 되는 것은 아니며, 독자가 번역텍스트의 목소리를 기관의 목소리로 인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제도번역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2008: 23). 가령 특정 기관에서 번역의 과정을 통해 제작된 텍스트가 기관의 이름으로 독자에게 제시되고, 독자는 명백하게 기관을 의식한 가운데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경우(예, 특정 기업의 제품사용설명서)는 제도번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천텍스트의 저자가 특정 기관에 소속된 것을 독자가 인지하거나(예, 특정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보고서) 기관의 명칭이 번역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자가 기관을 의식하면서 읽는 경우(예, 특정 언론사에서 번역된 외신기사)는 모두 제도번역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러나 출판번역은 제도번역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원저자도 번역자도 특정 출판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자도 출판사를 의식하면서 번역서를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코스키넨이 번역텍스트의 수용을 중심으로 제도번역을 정의한 것은, 제도번역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번역서비스(Translation Service)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가 주로 기관 내에서 생성되며, 번역작업도 유럽연합의 번역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그리고 번역텍스트는 유럽연합에서 또는 회원국에서 유럽연합의 목소리로 수용된다. 오늘날 제도번역은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코스키넨은 연속선의 극단에 위치한 번역, 즉 번역에 대한 규칙과 규정이 있고, 번역자의 행위에 대한 규범이 있으며 번역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기관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번역만을 '제도번역'으로 이해한 것이다.

코스키넨과 달리 이 글에서는 '제도번역'을 원형(prototype)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형식적 제도'와 '구체적 제도'에서 행해지는 번역을 모두 제도번역으로 간주한다. 가장 원형적인 제도번역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번역국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의 번역서비스와 같이 번역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일 것이다.⁸⁾ 원형적인 제도번역에서는 기관이 번역자를 선정하고, 기관이 의뢰하는 텍스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번역자가 번역하는 것이다(예, 외교통상부 협정문 번역, 기업/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번역). 반면 주변적인 제도번역은, 특정 기관을 위해 번역텍스트를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번역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예, 출판번역,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번역).⁹⁾ 이처럼 제도번역을 상황 중심으로 정의한 것은 문화권별로, 시대별로 다양한 제도번역의 유형을 이 개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앞에서 언급했듯이 코스키넨과 모섭은 이런 번역기관에서 행해지는 번역만을 '제도번역'으로 간주한다.

9) 출판번역의 경우 출판사가 번역 대상 서적의 선정이나 번역·편집·출판의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번역의 특성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4. 제도번역에서 주체의 문제

다른 번역 유형과 마찬가지로 제도번역은 원천적으로 다름 수밖에 없는 두 언어, 두 문화 간의 차이를 매우기 위한 “협상”이다. 이는, 번역이 “두 언어 간 또는 두 문화 간 존재하는 근본적인 비동형성(anisomorphism)과 비대칭성(asymmetry)에 대한 협상”이라는 마리아 티모츠크(Maria Tymoczko)의 명제를 토대로 한다(Tymoczko, in press). 그러나 언어, 문화의 근원적 차이를 번역의 관점에서 논의한 티모츠크와 달리 이 글에서는 제도번역의 관점에서 ‘번역은 협상’이라는 명제가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번역 관련 논의에서 ‘협상’의 주체는 주로 개별적인 번역자이다. 번역자는 상이한 두 언어·문화 체계 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원천텍스트의 특정 언어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의 가능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언어로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앤소니 뎀(Anthony Pym)의 설명 방식을 따른다면, 이러한 작업은 “생성(generating)”과 “선택(selecting)”의 과정을 수반한다. 즉 번역자는 원천텍스트의 언어표현에 대응하는 도착어 문화권의 가능한 모든 표현을 면밀히 고려한 후(‘생성’) 가장 적합한 표현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Pym 2003).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성’과 ‘선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언어는 개별적인 것이고, 번역은 개인적인 행위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기로 결정하는가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번역텍스트는 나의 이름이 명기된, 나의 것이다(cf. Mossap [sic] 1983). 나는 익명성을 가지지 않는다. 나의 번역으로 인해 결국 나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향상되거나 훼손될 것이다. 물론 원저자나 번역 의뢰인도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만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번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팀의 일원으로 공동번역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나만 책임을 지며 나는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하다. 나의 말은 나만의 것이다. (Chesterman 1997: 194)

이 구절은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이 번역윤리에 대해 논의하

는 가운데 언급한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즉 '생성'과 '선택'이 주로 개별 번역자의 행위로 이해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인용했다. 번역자 개인의 능력과 윤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번역을 본다면 텍스트의 해석과 언어표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번역자만의 것이다. 즉 번역에 대한 결정과 번역텍스트의 구성에 있어 번역자를 제외한 다른 행위자나 상황적인 요인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번역의 경우 '생성'과 '선택'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특정 기관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도적 맥락이 번역자의 사고와 행태 그리고 번역에 대한 판단과 신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 번역에 대한 관련자들(기관의 여러 행위자)의 인식, 번역 관련 행동강령이나 번역지침 등은 번역자의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구조화 과정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번역자의 의미 해석과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번역 실천에는 번역자 개인의 주체성과 능동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번역자의 주관성에 따라 번역 결정에 다양성과 비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적 맥락에서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는 기관의 이념과 목적, 규범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텍스트 해석과 재표현의 과정에서 기관의 담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경험 세계로서의 제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전수되어온 도식에 따라 번역자들이 번역의 문제를 접근하도록 한다. 번역자들은 관습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된 번역방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아비투스, 즉 번역에 대한 성향을 형성하게 되고, 아비투스는 제도 속에 위치한 번역자의 인식, 판단, 행위를 구조화한다(Bourdieu 1984: 107). 즉 “구조화된 그리고 구조화하는 구조(structured and structuring structure)”로 작용하면서 아비투스는 특정 제도 내에서 정당한(legitimate)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Inghilleri 2003: 245). 이 문제를 윤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번역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단절과 분리가 제도번역에서는 은폐된다고 강조한다. 즉 매끄럽게 소통, 이해되도록 포섭하는 “동질화의 번역윤리”가 제도번역에서는 추구되는데, 이는 기존 번역규범을 전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Venuti 1998: 82).

제도번역은 특히 '선택'의 문제에서 다른 번역 유형과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제도적 맥락에서는 번역이 주로 다른 과업 수행의 한 부분으로 또는 번

역과 비번역을 모두 포함하는 텍스트 생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접근된다. 따라서 번역이 관련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번역텍스트의 최종 구성 방식이 번역자가 아닌 다른 행위자에 의해 확정되기도 한다(Kang 2007). 번역자의 작업이 초벌번역으로 간주되는 경우 번역텍스트는 에디터, 편집자, 감수자 등에 의해 편집, 감수, 운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성 절차가 여러 개의 번역본을 전제로 하거나(예, 방송국의 뉴스보도에서 해외 취재내용이 자막번역 형식으로 뉴스에 방송되기까지 번역텍스트는 여러 형식으로 존재한다), 여러 번역자의 공동작업을 전제로 할 경우 최종 번역본은 누군가의 개입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개입은 번역자가 아닌 다른 행위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개입의 방식은 특정 표현을 새로운 언어표현으로 대체하거나 번역텍스트 중 일부만 최종본에 포함되도록 취사선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Kang 2009). 특히 제도번역에서 선택의 과정은 원천텍스트의 “불투명한 기표(opaque signifier)”를 특정 의미로 고정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의미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 (Kang, in press).

중요한 것은 이러한 최종적인 선택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편집자, 감수자의 개입은 번역오류를 줄이고 완성도 높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복수의 행위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의 텍스트 생성 절차는, 가능한 여러 표현 중 기관의 담론이 가장 잘 구현되는 표현이 선택되도록 만들어지기도 한다. 즉 기관의 담론과의 간극이 인지될 수 없는 번역텍스트, 기관의 담론이 가진 전제, 관점, 용어, 문체가 그대로 반영된 번역텍스트가 구현되도록 생성 절차가 확립되기도 한다(Kang, in press). 번역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가능한 여러 도착어 표현들이 ‘생성’되고 경합을 벌일 지라도 최종본에 등장하는 표현은 기관의 담론의 틀에 부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번역은 특정 기관의 담론을 생성하고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이를 유통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제도적 맥락에서 번역 문제가 발생할 때 이는 번역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번역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점검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5. 제도번역 연구, 왜 필요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번역' 개념이 번역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서 번역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제도번역 행위가 확산되면서이다. 본격적인 학술적 관심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으며, 번역학자들은 2000년 초중반부터 제도번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번역 논의는 번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차원을 넘어 번역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번역학의 논의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즉 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의 번역 실천, 개념, 이론이 '보편' 또는 '일반'으로 상징되는 관점에 대해 2000년대 중반부터 번역학자들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Tymoczko 2007, Hermans 2006, Hung and Wakabayashi 2005, Cheung 2006).¹⁰⁾ 2009년 출간된 『라우틀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개정증보판에서도 공동 편저자인 모나 베이커와 가브리엘라 살다나(Gabriela Saldanha)는 책의 편집 방향과 관련하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번역학이 이루어 낸 성과는 보존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주제들과 번역학의 다학제성은 반영하고, 유럽 중심주의로부터는 벗어나는 것”(Baker and Saldanha 2009: xxii)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을 '세계'와 동일시하면서 유럽의 가치를 인류 보편의 가치로 상징하는 유럽 중심적 번역학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양한 문화권의 번역 실천을 토대로 하는 번역담론 형성에 대한 시도로 이어졌다.

제도번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촉발시킨 것은 유럽의 번역 문제들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의 제도번역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번역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도번역이 아시아에서는 보편적인 번역 방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cf. Cheung 2006, Hung and Wakabayashi 2005, Kang 2009, 2010, 2012).

10) 베이커와 살다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초판에 포함된 많은 항목들을 개정증보판에서는 통합, 제외 또는 다시쓰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항목은 윤리, 젠더와 성, 전지구화, 소수, 이동, 제도번역, 사회학적 접근법, 아동문학, 로컬라이제이션, 검열, 문화번역, 대화통역 등이다.

이바 형(Eva Hung)은 중국 번역 역사를 ‘문화번역’과 ‘정부번역’의 역사로 설명하면서, 특히 정부번역은 중국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행해진 번역이라고 주장한다(Hung 2005: 74). 또한 문화번역에서도 불경번역은 복수의 번역자들이 공동으로 그리고 제도화된 형식으로 번역을 수행했다(Cheung 2006). 그러나 르페브르는 유럽 번역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중국에서의 공동번역 전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Lefevere 1998: 22)이라고 말한 바 있다.¹¹⁾ 르페브르의 지적은 제도적 맥락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을 유럽에서는 예외적 현상으로 오랫동안 간주해온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¹²⁾ 이는 유럽의 ‘보편성’과 아시아(비유럽)의 ‘특수성’이라는 인식론적 위계질서를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제도번역의 역사성, 지속성, 연속성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중국 학자들의 의식과는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의 번역에 대한 인식은 주로 개별 번역자를 중심으로 하며, 원천언어-목표언어, 원천문화권-목표문화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¹³⁾ 그러나 제도번역은 이러한 인식을 교란시킨다. 제도번역에서 ‘제도’의 개념은 원천문화권과 목표문화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부하며, ‘목표문화권 현상으로서의 번역’이라는 투리의 관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¹⁴⁾ 즉

- 11) 티목즈코는 번역학이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번역학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ymoczko 2007).
- 12) 유럽 번역 역사 속에서도 제도번역의 사례들은 존재한다. 성경번역이 잘 알려진 제도번역의 예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흠정역(King James Version) 번역은 제도번역의 흥미로운 사례이다.
- 13) 스코프스 이론을 비롯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번역이 상이한 역할을 맡은 행위자 간의 협업 속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의 번역학 논의를 보면 개별 번역자를 전제로 번역이 주로 연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역학의 중요한 통시적, 공시적 논의들을 살펴보면(특히 발터 벤야민이나 앙트완 베르만을 비롯하여 번역인식론적 관점에서 논의한 학자들의 살펴보면) 번역은 개별 번역자의 행위로 개념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역주의 vs. 의역주의, 원문중심주의 vs. 번역문중심주의 등의 논쟁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 14) 투리는 “번역은 한 체계, 즉 목표 체계(target system)에서만 사실”(Toury 1985: 19)인 현상임을 지적함으로써 원천텍스트와의 관계만이 기준이 아닌, 목표문화권 현상으로서의 번역을 고찰할 수 있도록 번역학 논의를 진전시켰다. 직역주의 대 의역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번역담론은 투리로 인해 규범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문제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번역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제도적 맥락은 원천문화권이나 목표문화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속성들을 지니며, 제도가 목표문화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목표문화권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일례로 특정 언론기관에서 행해지는 외신번역을 목표문화권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설명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Kang 2007, 2010, 송연석 2011, 이주리아 2011). 제도번역에서 '규범'이나 '절차', '확립된 역할' 등이 번역자의 아비투스를 구조화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제도번역을 일반적인 '목표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번역은 '번역'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번역'은 번역텍스트, 번역행위, 번역의 과정이나 결과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Munday 2012). '번역'을 사용하여 번역결과물을 지시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번역자의 선택과 결정의 산물, 번역행위나 번역과정의 결과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번역 연구자들이 번역텍스트 분석을 통해 번역자의 전략을 논하는 것도, 번역결과물인 텍스트가 번역 주체에 의해 그리고 번역행위 수행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도번역에서는 번역텍스트가 번역자의 개별적인 작업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제도번역의 결과로 구성된 번역텍스트는 많은 경우 다른 행위자들의 편집과 감수과정까지 모두 거친 결과물이다. 따라서 '제도번역'이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특정 번역자의 번역행위, 번역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행위자들에 의한 수정, 편집, 감수, 윤문의 행위와 과정과 결과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번역이 아닌 것까지 제도번역에서는 '번역'의 개념적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적인 혼란은 정반대의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일례로 언론기관에서는 번역과 편집의 경계가 매우 애매하고, 행위의 주체들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일부 번역학자들은 유럽의 언론기관들에서 특정 언어로 쓰인 기사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행위를 '번역'이 아닌 "transediting"(Stetting 1989), 즉 '편역'으로 지칭한다(e.g. Hursti 2001, Cheeseman and Nohl 2010, Van Doorslaer 2009). 1989년 카렌 스테팅(Karen Stetting)이 사용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언론기관에서 외국어 기사를 새로운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이 번역과 편집을 포함하는 여러 활동들로 이루어지는데, 언론 기관의 행위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번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역’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역과 함께 ‘번역’이 여전히 사용되면서 ‘번역’은 매우 협의의 직역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이다(Bielsa and Bassnett 2009, Stetting 1989). 다시 말해, 명시화, 일반화, 생략, 첨가, 재구성 등 다양한 번역 방법을 토대로 하는 번역은 ‘번역’이 될 수 없고 ‘편역’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의 언론기관에서 사용되는 ‘번역’의 개념적 범주는 일반적으로 번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포함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번역’의 개념이 제도적 맥락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해 매우 구체적, 한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제도번역 연구에서는 ‘번역’에 대한 논의가 가변성, 상황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일반적인 번역 논의에서도 번역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규범과 조직을 통한 구체적인 경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도적 상황에서는 행위자들에 의해 번역이 이해되는 방식은 특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불안정성과 가변성은 제도번역에서 행위자 간의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로 인한 갈등관계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6. 제도번역 연구 주제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제도번역이 일반번역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번역의 문제들을 보여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제도번역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번역 연구가 텍스트 중심적인 관점(특히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 간의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제도번역 연구는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와 번역자 간의 상호작용, 번역주체나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태도, 번역윤리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기관에서 번역 대상으로 선정하는 텍스트는 어떤 성격의 텍스트인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가? 번역자의 선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자격의 번역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번역자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기

관의 관계자들은 번역과 번역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

- 번역은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기관의 행위자들 간에는 번역행위, 속성, 절차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이 있는가? 이해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관의 목적과 이념 달성을 위해 번역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기관의 재정 상태나 경제적 요인들은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번역자는 어떤 참여구조 속에서 작업하며, 기관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번역과 관련된 지침이나 행동강령이 있는가? 번역자는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가? 번역자는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번역을 수행하는가?
- 번역텍스트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완성 및 출간되는가? 그 과정과 관련된 행위자들은 누구인가? 기관의 다른 행위자들은 번역과정에 개입하는가? 개입한다면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는가? 번역자는 다른 행위자들의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도번역을 통해 구성된 번역텍스트는 어떤 의미적, 구조적, 문체적 특징을 보이는가? 번역텍스트는 어떤 담화적 특징을 가지는가?
- 기관에서 추구하는 등가는 어떤 등가인가? 제도번역이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가? 번역텍스트 수용의 맥락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관과 번역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 번역 문제를 중심으로 번역자와 기관이 긴장 또는 갈등관계를 보인 적이 있는가? 기관과의 갈등에서 번역자가 능동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가? 제도번역에서는 어떤 번역윤리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권별로 볼 때 제도번역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번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번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제도번역 연구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들은 이 외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번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번역 관련 사건들에서 드러난

문제들이기도 하다. 제도번역을 이해하고 앞으로 제도적 맥락에서 야기되는 번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7. 결론

이 글에서는 제도번역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제도번역 연구에서 탐색 가능한 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도번역이 행위로서의 역사는 길지만 번역학 개념으로서의 역사는 짧은 점을 고려한다면, 제도번역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제도번역에 대해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지만, 제도번역의 성격과 특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번역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번역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연구가 시급하다. 첫째, 다양한 제도번역의 사례들이 발굴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번역학이 학문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험적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번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제도번역도 마찬가지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아직까지 한국 역사 속에서 제도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언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번역자들이 작업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제도번역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번역의 복잡한 세계를 세밀하게 고찰하면서 전체적인(holistic) 관점도 포착해내는 분석이 필요하다. 제도번역 사례연구에서는 특히 번역의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 (Geertz 1973, Lincoln and Guba 2000)을 통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기관의 규범, 절차, 역할, 행위자들의 인식에 대한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번역이 역사적, 정치사회적, 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번역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번역학에서

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방법의 문제를 고민해 왔고, 이제는 다양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들이 번역연구에 사용되고 있다(Tymoczko 2007, 2002, Hermans 2002, Olohan 2000, Browlie 2008). 현재까지 제도번역은 주로 담화분석, 텍스트언어학, 민속방법론적 연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되었지만,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번역학자 자신이 자료수집의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 자기반성성(self-reflexivity), 즉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스스로를 고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제도번역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연구방법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때 제도번역 연구와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다양한 사례 발굴과 연구방법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제도번역에 대한 연구경험과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번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한편,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번역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4): 7-40.
- 강지혜 (2010) 「번역학에서의 ‘번역주체’ 연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2(2): 3-26.
- 송연석 (2011)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외신인용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145-65.
- 이상원 (2005)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이승재, 성초립, 이계연, 이향, 김영진, 장현주, 이상원, 조상은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2): 57-107.
- 이주리에 (2011)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의 평가어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158-84.

- Baker, Mona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eds)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ielsa, Esperanç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Browlie, Siobhan (2008) 'Resistance and Non-Resistance to Boundary Crossing in Translation Research', *Target* 20(2): 333-47.
- Buzelin, Hélène (2005) 'Unexpected Allies: How Latour's Network Theory Could Complement Bourdieusian Analyses in Translation Studies', *The Translator* 11(2): 193-218.
- Cheeseman, Tom and Arnd-Michael Nohl (2010) 'Many Voices, One BBC World Service? The 2008 US Elections, Gatekeeping and Trans-editing', *Working Paper Series*. Visited 8 June 2011, <http://www8.open.ac.uk/researchprojects/diasporas/files/diasporas/diasporas_working-paper-20.pdf>.
- Cheung, Martha (ed) (2006) *An Anthology of Chinese Discourse on Translation. Vol. 1*, Manchester: St. Jerome.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Benjamins.
- Chesterman, Andrew (2006) 'Questions in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in João Ferreira Duarte, Alexandra Assis Rosa and Teresa Seruya (eds), *Translation Studies at the Interface of Disciplin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9-27.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 Gouanvic, Jean-Marc (2005) 'A Bourdesian Theory of Translation, or the Coincidence of Practical Instances', *The Translator* 11(2): 147-66.
- Hermans, Theo (1995) 'Translation as Institution', in Mary Snell-Hornby, Zuzana Jettmarová and Klaus Kaindl (eds),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3-20.
- Hermans, Theo (2002)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St Jerome: Manchester.
- Hermans, Theo (ed) (2006) *Translating Others. Vol. 1*, Manchester: St. Jerome.
- Hung, Eva (2005) 'Translation in China - An Analytical Survey: First Century BCE to Early Twentieth Century', in Eva Hung and Judy Wakabayashi (eds) *Asian Translation Traditions*, Manchester: St. Jerome, 67-108.
- Hung, Eva and Judy Wakabayashi (eds) (2005) *Asian Translation Traditions*, Manchester: St. Jerome.
- Hursti, Kristian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News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The Electronic Journal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Visited 5 June 2011, <<http://blogs.helsinki.fi/hes-eng/volumes/volume-1-special-issue-on-translation-studies/an-insiders-view-on-transformation-and-transfer-in-international-news-communication-an-english-finnish-perspective-kristian-hursti/>>.
- Inghilleri, Moira (2003) 'Habitus, Field and Discourse. Interpreting as a Socially Situated Activity', *Target* 15(2): 243-68.
- Inghilleri, M.oirra (ed) (2005) 'Bourdieu and the Sociolog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he Translator* 11(2).
-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2): 219-42.
- Kang, Ji-Hae (2009)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 Sadh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41-45.
- Kang, Ji-Hae (2010) 'Positioning and Fact Construction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Maeve Olohan and Maria Calzada Pérez (eds), *Text and Context*, Manchester and Kinderhook: St. Jerome, 157-87.
- Kang, Ji-Hae (in press) 'Translating Mad Cow Disease: A Case Study of Subtitling for a Television News Magazine', *Meta* 27(2).
- Koskinen, Kaisa (2000) 'Institutional Illusions: Translating in the EU Commission', *The Translator* 6(1): 49-65.
- Koskinen, Kaisa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 Lee, Sang-bin (2009) 'An Investigation into the Legal Translation Guidelin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US FT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0(2): 304-31.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ncoln, Yvonna and Egon Guba (2000) 'The Only Generalization Is: There Is No Generalization', in Roger Gomm, Martyn Hammersley and Peter Foster (eds), *Case Study Method*, London: Sage, 27-44.
- Merton, Robert (1998) 'Forward', in Mary C. Brinton and Victor Nee (eds), *The New Institutionalism in Sociology*,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xi-xiii.
- Mossop, Brian (1988) 'Translating Institutions: A Missing Factor in Translation Theory', *TTR* 1(2): 65-71.
- Mossop, Brian (1990) 'Translating Institutions and 'Idiomatic' Translation', *Meta* 35(2): 342-55.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3rd ed.), New York : Routledge.
- Olohan, Maeve (ed) (2000)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 Textual and Cognitive Aspects*, Manchester: St Jerome.

-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1989) Oxford: Oxford UP.
- Parsons, Talcott (1967)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A Study in Social Theory with Special Reference to a Group of Recent European Writers*, Glencoe, IL: Free P.
- Pym, Anthony (2003) 'Redefining Translation Competence in an Electronic Age', *Meta* 48(4): 481-97.
- Pym, Anthony (2009) 'Humanizing Translation History?', *Hermes* 42: 23-48.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and Zusana Jettmarová (eds) (2006) *Sociocultural Aspect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Pym, Anthony,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2008)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cott, W. Richard (2001)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2nd ed.), Thousand Oaks: Sage.
- Stetting, Karen (1989) 'Transediting—A New Term for Coping with the Grey Area between Editing and Translating', in Graham Caie, Kirsten Haastrup et al. (Eds.). *Proceedings from the Fourth Nordic Conference for English Studies*, Copenhagen: U of Copenhagen, 371-82.
- Tosi, Arturo (ed) (2003) *Crossing Barriers and Bridging Culture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Toury, Gideon (1980) *In Search of a Theory of Translation*, Tel Aviv: Porter Institute.
- Toury, Gideon (1985) 'A Rationale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in Theo Hermans (ed),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London and Sydney: Croom Helm, 16-41.
- Tymoczko, Maria (2002) 'Connecting the Two Infinite Orders. Research Methods in Translation Studies', in Theo Hermans (ed),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Manchester: St. Jerome, 9 - 25.
- Tymoczko, Maria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Tymoczko, Maria (in press) 'Translation Theory' in Carol A. Chapelle (ed),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Malden, MA: Wiley-Blackwell.

Van Doorslaer, Luc (2009) 'How Language and (Non-)Translation Impact on
Media Newsrooms. The Case of Newspapers in Belgium', *Perspectives*
17(2): 83-92.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Wagner, Emma, Bech Svend, Jesús M. Martínez (2002) *Translating for the*
European Union Institutions, Manchester: St. Jerome.

Wolf, Michaela (ed). (2006). *Übersetzen--Translating--Traduire: Towards a*
"Social Turn"?, Münster, Hamburg, Berlin, Vienna and London: LIT.

Wolf, Michaela and Fukari, Alexandra (eds) (2007) *Constructing a Sociology of*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Abstract]

Rethinking Institutional Translation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terms of the ways in which the concept could be utilized not only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but also to examine, self-reflexively, our approach to studying translation. Although the practice of translation occurring in different levels of institutionalized settings has a long history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 term institutional translation is relatively new in the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approaches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as a prototype and argues that while the concept has been understood by some translation researchers as translation taking place in specific organizations committed to carrying out translation for official purposes, institutional translation should be viewed as a form of translation practice occurring within the context of formal or specific organizations and characterized by interaction between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institution, such as norms, establish roles, text production procedures, and the process and product of translation. The study shows that institutional translation provides a vantage point to analyze such topics as the status of translators, their working conditions, identity, public and self-image, role perceptions, power relations, and ethical dilemmas.

▶ Key Words: institutional translation, translating agent, power relationship, translation ethics, social structure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부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번역, 미디어번역

논문투고일: 2012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14일